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 식스 목사

시편 146편

2023년 6월 4일 설교

오늘은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Clement Tendo가 마을로 돌아와서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에 대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편 146편은 기도이자 예배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저는 시편 146편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 방백들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4 그의 숨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은 소멸됩니다.

5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도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소망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며

6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영원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

7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8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9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지키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느니라

10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시온이여 네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을 찬양!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자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할렐루야!”라고 외친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멘”과 “할렐루야”와 같은 말은 우리 모두가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자가 노래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찾기에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 감각 상실 앱이 “경로 재계산 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마음과 정신의 주의를 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다시 계산하도록 도와줍니다.

1-2a절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a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쳐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에서 떨어뜨릴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찬양하거나 신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3절의 경고를 보십시오.

3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았으니 그에게는 구원이 없느니라”

3절의 “방백들”은 “유력자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남녀들은 그들의 외모나 뛰어난 재능이나 권력이나 지혜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화하면 될까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까?

4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4”그의 숨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이 무너진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선을 행하려 하든 악을 행하려 하든 그가 죽으면 그의 계획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의 왕은 죽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분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죽으셨고 부활절 일요일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은 당신이 회개하고 그를 신뢰할 때 당신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때, 당신에 대한 그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할렐루야-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영원히 왕의 자녀로.

한동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도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소망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며”

축복은 시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1편의 첫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걷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영혼과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그런 모든 방법으로 인간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기 전에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능동 동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7”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8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9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지키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며”

시편 146편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 후에 나사렛 예수도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를 죽이고 벰랑에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화를 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문둥이와 세리, 방백과 가난한 자들을 온 땅 구석구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 메시지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46:7-9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18-19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18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19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도우면서 두루 다니실 때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인 우리는 지상에서 그분의 육체적 임재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눈멀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지키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며”

영어로 ”고아”는 살아 있는 부모가 전혀 없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버지가 없는”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한 문장에서 ”과부”와 ”고아 없는”을 50번이나 함께 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남성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 고아, 나그네는 경제적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 교사 또는 공급자가 없었습니다.

내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자녀를 둔 미혼모, 위탁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최근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는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가정 법원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위한 임시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부모에게 넘기기 전에 정부는 이러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싱턴 DC 상급 법원의 창문 없는 구석에 가정 법원 게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개 게시물로 덮여 있습니다.

각 문서는 위탁 보호 아동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2주 동안 유지되어야 하지만 종종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시판에서도 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잊혀집니다.

최근 목요일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당신의 정맥에 코카인이 있는 HIV 양성 반응으로 태어난 6개월 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정신 분열증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두고 모텔로 이사 한 갓난 아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당신의 1살짜리 아이가 발목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마침내 음식을 먹었을 때 멈추지 않고 씹었습니다.

익명의 아버지, 자녀의 어머니는 사회 복지사에게 아기를 어디에 두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당신에게는 7주 일찍 태어난 여자 아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태어난 지 이틀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아버지, 생후 1주일 된 딸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아버지, 당신에게는 13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아버지, 갓난아기 딸이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당신의 것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녀가 길을 잃었거나 당신에게서 빼앗겼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자매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 전에 영적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고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 딸,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4-7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령님.

7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3:26-28의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26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27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서 옷 입었느니라

28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 가족에 함께 하게 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방에는 아름다운 피부색과 악센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아버지는 같기 때문에 모두 친척입니다.

성화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도록 빔어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68:5-6a는 이렇게 말합니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a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가족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그것이 그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Kashif는 은행가" 또는 "Sana는 교사"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제목은 그들의 활동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변호자로 묘사하십니다.

그는 가족의 외로운 사람들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과부를 보호하시고 외로운 자를 가족으로 세우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영적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기 전에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시편 146:7-9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여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구절들을 당신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네가 압제를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리로다

당신이 배고플 때 그는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갇힌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 먼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엎드려 있을 때 당신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난민과 이민자 여러분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는 과부들과 홀어머니들을 붙드시며

고아와 고아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사랑으로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형이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종을 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러 오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가정에 두시고 고아를 돌보시며 나그네를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의 성화와 기쁨,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